

'사람과 자연 공존' 전주 만든다

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과제 확정

전주시가 교통과 녹지, 에너지, 환경, 도시계획 등 전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을 본격화했다.

전주시는 시정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세부실천계획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1년 1개월 동안 추진해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생태도시 전주의 비전과 목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립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생태도시 전주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소통과 도시계획, 에너지, 녹지, 교통 등 각 분야의 사업들을 상호 연계해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한다 △탄소를 줄인다 △성장을 관리한다 △순을 넓힌다 △길을 공유한다 등 5대 목표를 수립했다. 또, 이를 토대로 부서별·과제별 세부실천계획(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목표별 가이드라인 및 61개 세부 실천계획의 최종(안)을 도출했다.

우선, 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역량강화와 시민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태도시 시민교육센터 구축, 생태도시 리더그룹 양성, 생태도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또한 탄소를 줄이기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과 저영향 개발 지향, 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재활용 생활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통해 시는 전주를 △소통과 포용의 시민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의 다양성이 있는 도시 △시민이 존중받으며 이끄는 도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독자적인 도시 △미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생태도시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연구용역과는 달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생태도시 시민원탁회의와 전문가 포럼, 시민디자인워크숍 등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해왔다. 또, 생태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를 함께 다룸으로써 차별화를 뒀다.

시는 확정된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상호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노조 연좌농성 벌여

김승수 시장과 대화 후 풀려... 시장 인사권 압박 비판 여론

전주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직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조합원들이 밤새 시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1박2일 연좌농성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청사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태를 공무원들 스스로 자행한 꼴이다.

전직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3시 전주시청 3층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관련 사전 협의 등 노사협의를 제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기습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의 시장실 연좌농성은 밤을 꼬박 넘겨 다음날 10시경 김승수 시장이 대화에 나서면서 풀려났다.

공무원노조원들의 농성은 풀렸지만 전주 항공대 이적을 둘러싼 갈등과 교일 대로 교인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등 전주시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기습적인 시장실 1박 2일 연좌농성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압박한 행태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사협의 요구안 중 전주시 정기인사와 관련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 반영, 조직개편 계획 시 노사협의, 조합원 징계처분 사전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노조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요구안을 들이밀고 나와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하

려는 노조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노조 예산안 증액 방안,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사무실로 시청 5층 도서관 이용 방안 강구 등 노조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요구도 담고 있어 전주시가 노조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주시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장실 점거 1박2일 연좌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 양상으로 밀어붙여 시장을 압박하는 노조의 구태에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무원들이 처를 때는 악성 민원인들의 시청사 점거 행패를 공무원 신분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그대로 따라한 셈이라는 비판이다.

전주시민 L(41)씨는 "공무원노조원들이라고 시장실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나"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태의연한 투쟁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해만을 관철하려는 행태에 실망이 크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박은주 전주시지부장은 "전주시와 이날 노사협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차례 부시장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부시장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됐다"며 "바쁜 일정을 이유로 노사협의 참석을 거부한 부시장이 수차례 일정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에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삼례 강도치사사건' 재심 개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관 부장판사)는 8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로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3인조 강도가 침입, 범인들은 잡자던 주인 할머니(당시 76)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박용주 기자



이건 언론탄압이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도지침논란 이정현 규탄 기자회견'에서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내 경찰관 비위 또 발생... 명예 추락 '한숨'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일부 경찰관의 비위 사건으로 흥역을 앓았는데 이어 또 다시 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터져 동료 경찰의 명예를 먹칠하는 행태에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경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현직 경찰관 A경위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즉

시 현장에 출동해 A경위를 붙잡았으며, 현재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와 매장 내 CCTV를 분석하는 등 A경위의 범행을 확인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B경위의 비위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파면조치를 내렸으며 또 다른 C경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경위는 지난 4일 음주교통사고를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

고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파면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C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입증돼 기소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경위의 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전북경찰이 엄중한 징계를 내리며 외친 기강 확립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결과를 만들어버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조직의 명예에 먹칠하는 비위 경찰에 대한 엄중한 징계로 조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만나 외식자리를 가졌지만 자녀들이 이혼한 어머니를 쫓아가자 혼자 술을 마시다 화집에 집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8일 4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자녀 3명을 혼자서 양육하다 신변을 비판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8)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30분경 순창군 팽덕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그는 양다리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